

[바 둑]

‘신예 저격수’ 최원용 4단 ‘고수사냥’은 계속된다

물가정보매 4강전, 이창호 누르고 28일 이세돌 9단과 정상 다툼



〈최원용 4단〉

국내 프로기사 랭킹 40위와 2위급 맞대결. 객관적인 전력상 랭킹 2위에 올라있는 이세돌 9단이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물가정보매 결승 3번기에서 최원용 4단을 손쉽게 제압하고 승리를 쟁길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어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신예 저격수’ 최원용 4단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는 신예 기사로서 맞대국만으로도 영광인 이창호 9

단을 두 번이나 꺾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14일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이창호 9단을 불계승으로 제압, 결선에 올라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최 4단은 지난달 7일 본선리그에서 이 9단에 불계승을 거둔데 이어 준결승에서까지 2연승을 거둬 ‘이창호 킬러’라는 애칭을 얻었다. 그의 화려한 ‘고수사냥’ 전력은 2단이던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제8회 삼성화재배 예선 2회전에서 중국 랭킹 2위였던 저우허양 9단을 제압, 바둑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가 지난 2002년에 같은 대회에서 저우허양 9단을 제압, 본선진출을 좌절시킨 바 있기 바둑계의 놀라움은 더했다. 당시 최철한, 박영훈 등 내로라 하는 기사들도 최원용의 시퍼런 칼 앞에 무릎을 꿇었을 정도. 그랬던 그가 이창호와 ‘바둑 지존’을 다투는 이세돌을 만난다. 나이는 최원용이 84년 생으로

83년 생인 이세돌과 불과 1살 차이이지만, 바둑 서열로 따지자면 4단과 9단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관록이나 경륜도 ‘쪽팔볼급’이다. 게다가 현재 이세돌은 굶주릴 대로 굶주린 사자다. 올해 맥스커피배 입선최강전 우승이 유일한 정도로 이룩을 못했기 때문에 잔뜩 욕이 올라 있는 상태. 이세돌 9단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격언을 상기하며 대국장에 들어설 것은 불분가지다. 그렇다면 최원용이 비집고 들어갈 빈틈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세돌의 예봉을 꺾을 최 4단의 유일한 필전은 고수들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 든든한 배심이다. 그는 또 지난 2003년 8월 LG배 8강전에서 최정철을 달리던 이세돌 9단을 한 차례 꺾은 경험도 있다. 무엇보다 그는 대국을 앞두고 몸이 가볍다.



〈이세돌 9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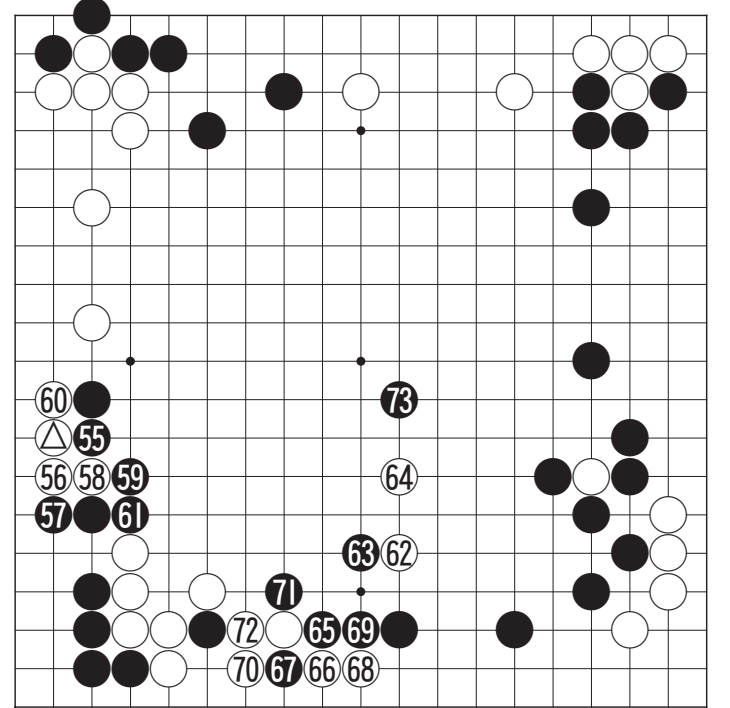
패배하면 ‘선전’이고, 이기면 ‘파란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세돌 9단으로서의 이겨봐야 본전이고, 지면 얼굴이 깎이는 부담스러운 대국. 패기에 찬 신예 최원용과 백전노장 이세돌이 우승 상금 2천200만원을 놓고 벌이는 물가정보매의 흥배가 궁금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침입수 성공’
3회전 제4보(5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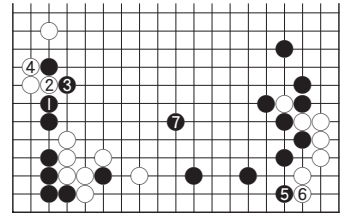
白 이상의 5단
(광주시청 A)

黑 김성호 5단
(농협)



백 ㉞가 흑의 허점을 찔러간 날카로운 침입이다. 실전에서는 대개 이런 수를 간과하고 쉽게 두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상대의 날카로운 한 수에 당하고 나면 ‘아차’하고 후회를 한다. 그래서 고수들은 뻔한 곳인데도 보고 또 보고 확인을 거듭하며 시간을 몰스듯 하는 것이다. 판전자가 보기엔 “뻔한 수를 왜 저리 뜯느냐” 하겠지만 천변만화(千變萬化)한 반상위에서 고수의 뇌리엔 발생 가능한 모든 수가 초고속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허를 찔린 김성호 5단은 흑 55로 눌러 막았으나 중요한 순간에 61로 후수를 잡은 것은 상당히 당한 모습이다. 이곳에서 흑은 ‘참고도’ 흑 1로 두어 3까지 선수를 잡고 우하귀

〈참고도〉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광주 KIXX, 선두추격 불 당기나

한국바둑리그, 23일부터 약체 인천 매일유업과 4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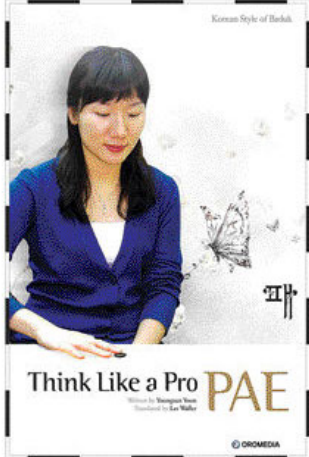
양팀 주장 이창호·최철한 9단 자존심 경쟁도 불 만

광주 KIXX가 약체 매일 유업을 상대로 승수 쌓기에 나선다. 광주 KIXX가 23일부터 열리는 KB국민은행 2006 한국바둑리그 인천 투어에서 매일유업과 4연전을 갖는다. KIXX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매일유업을 잡을 경우 또 다시 선두 추격을 맞고 있다. 선두 탈환을 노리던 KIXX는 지난 주 1위 한계기와 맞대결에서 일격을

의 자존심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흥미를 더한다. 인천투어에서는 대체로 팬서비스 행사도 열린다. 경기 공개 해설을 통해 바둑TV 해설자들의 명쾌한 해설을 들을 수 있고, 경품 추첨, 팬사인회 등 행사도 열린다. 또 인천 매일유업의 양상국 감독, 김영환 선수 등이 바둑팬 20명을 초청해 다들기를 갖는다. 한편, 2006 한국바둑리그는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한다.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진다. 우승상금은 2억 5천만원(준우승 1억 5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독 활동 운영선 5단 두번째 신간 출간

독일에서 활동중인 프로기사 운영선 5단이 두 번째 신간 ‘Think Like a Pro, Pae(패, 프로처럼 생각하라)’를 출간했다. ‘Think Like a Pro, Pae’는 모두 5개 장으로 구분돼 있으며 첫 장은 패의 종류를, 2장은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패에 얽힌 사생활을 다루었고 3장부터 5장까지는 패와 정석, 패와 끝내기, 패와 실전으로 구분하여 ‘골치거리’인 패를 쉽고 명쾌하게 분석했다. 현재 독일 하노버에서 유럽지역 바둑보급에 열중하고 있는 운영선 5단은 “이 책 한편으로 패



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기는 어렵겠지만, 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패와 친숙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33-6615 /윤영기기자 penfoot@

movies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련안역미국시거리 02-1544-0800

엔터시네마 총장르 57가 228-2700

컬럼버스 시네마

컬럼버스 시네마

씨너스 광주 8개관 8月 초 오름 T.383-3445~7

에이플러스 부동산건설링

존경하는 동료·선배 중개사님들께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중앙국토개발건설링

대지공인중개사